與 "방탄국회 없다"…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의총서 논의

김태년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의시 원칙 따라 국회법 처리"

"최고위서 검찰 조사 성실하게 응할 것 결정…지시 따라야"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방탄국회는 없으며 원칙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의 검찰 조사 출두 여부를 지켜본 뒤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최고위에서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결정했다"며 "정 의원은 당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조사를 미뤄 왔다"며 "이제 국감이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 속히 자진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를 통해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고 불응시 당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정 의원은 이날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정 의원의 검찰 출두 여부를 지켜보고 본인의 추가 소명도 들은 뒤 본회의 전 열리는 27일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오전 10시30분에 의총이 있는데 28일 본회의가 열려서 처리하게 돼 있으니까 (정 의원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이 한번 더 (지도부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 정 의원이 당대표를 만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본회의 보고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이후 3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 그 일정은 표결까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박정희 추도식 참석한 김종인…"여기 왜 왔냐" 현장 소란

보수 지지자들 반발 "보수 망치지 말라" 비난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싸고 참석자들이 "물러가라"고 외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등 지도부 일부가 방문했다.

이들은 왼쪽 가슴에 추모의 뜻이 담긴 리본을 달았으며 검은 정장 차림에 흰색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추도사를 맡은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만감이 교차한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들은 이제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 그간 온갖 폄훼와 모욕이 가해졌지만 박정희 시대는 우리나라를 넘어 20세기 세계사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들이 증오와 복수심에 빠져 현대사의 기억을 말살하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민들을 편가르고 모든 제도적 권력을 장악했다. 더 이상 허물어지기 전에 나라를 살리는데 모든 기회와 힘을 모으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전 국회의장의 추도사가 마무리된 후 박수가 나왔지만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는 박수를 치지 않고 묵묵히 추도사를 들었다.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조문이 예정된 주 원내대표는 다음 추도사가 진행되던 도중 자리를 빠져나왔다.

행사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김 위원장이 퇴장을 위해 걸음을 옮길 때 소란이 벌어졌다.

자리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김 위원장을 쫓아가 "여기 왜 왔느냐", "보수를 망치지 말라", "박 전 대통령이랑 사진 찍으러 왔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보수 유튜버 등은 김 위원장을 촬영하며 "보수를 버리자고 했는데 보수를 버리면 뭘로 할 거냐", "박근혜 대통령 석방 좀 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그간 '탈보수'를 언급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데 대한 반발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행사장을 빠져나가 차를 타고 이동했다.

뉴시스

민주당 '더혁신위' 출범…"혁신 실천해 보궐·대선 기여"

김종민 위원장 "스마트·유능한 백년민주당 기조"

김민석·권칠승·이용우 등 위원…내년 6월까지 활동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2020 더혁신위원회'가 26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혁신위 위원을 임명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김민석, 권칠승, 이용우, 이탄희, 오기형, 홍정민 의원과 최지은 당 국제대변인,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위원장 포함 9명 중 여성은 3분의 1인 3명(홍정민, 최지은, 김보라)이다.

위원회는 또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청년·자치분권·당직자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토론단도 마련했다.

의원 자문단도 송영길, 우상호, 홍영표, 이광재, 전해철, 황희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로 꾸려졌다.

전문가 자문단에는 정치·사회·심리학자 등을 위촉할 예정이다.

더혁신위는 ▲정책혁신 ▲소통혁신 ▲교육혁신 ▲조직혁신 등 4개 분과를 운용하기로 했다.

김종민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 운영 기조는 '스마트하고 유능한 백년민주당'을 기치로 삼았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유능정당 ▲혁신에너지가 결집하고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중심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선도하는 포용정당의 3대 기조를 제시했다.

더혁신위는 내년 6월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단기적인 혁신 성과를 도출하는 전반기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중장기 과제를 다룰 후반기로 구분했다.

더혁신위의 보궐선거·대선 역할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혁신위는 내년 보선과 내후년 대선 경선 관련 규정이나 시스템을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그건 이미 정해져있고 이를 고치는 것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할 것이지 혁신위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혁신위가 당을 혁신하겠다는 (방향) 것을 세우고 실천과제를 결정해서 실천해나가면 그게 내년 보궐이나 내후년 대선에 민주당의 혁신 성과가 선거에 기여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더혁신위는 내일(27일) 오후 준비회의를 열고 혁신위 활동 방향 등 주요 의제를 선정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혁신위에 대해 "스마트 백년 정당, 유능한 백년 민주당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끌 더혁신위의 활동에 큰 기대를 표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